

일. 가나안을 향해 떠남.

- ❖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축복과 존귀함과 안전을 약속하셨습니다 (창 12:2-3).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과 모든 민족에게 ‘그의 씨’ (창 22:18; 갈 3:16)를 통해서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.
- ❖ 먼저,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이자 바벨론과 가까이 있던 갈대아 우르를 (창 15:7, 사 13:19) 떠나 가나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(창 12:5).
- ❖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“바벨론”의 거짓말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(사 48:20, 렘 50:8, 계 12:2, 4).

이. 이집트로 내려감.

- ❖ 아브람은 가나안에 도착했고 벨엘과 아이 사이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(창 12:8). 모든 것이 잘 되는 듯싶었습니다! 하지만 “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.” 아브람은 어떻게 변했습니까?
- ❖ 믿음의 삶
 -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감 (창 15:7)
 - 하나님을 신뢰함 (창 12:4)
 - 축복이 됨 (창 12:2)
- ❖ 믿음 없는 삶
 -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감 (창 12:10)
 - 자신을 믿음 (창 12:13)
 - 저주가 됨 (창 12:17)
- ❖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아브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. 아브람은 벌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푸셨습니다.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.

삼. 다시 가나안으로 감.

- ❖ 하나님은 아브람이 새로 배우고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.
- ❖ 아브람은 더 이상 기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.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. 그래서 (가족 간에) 다툼이 일어났을 때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(창 13:5-11).

사. 롯을 구함.

- ❖ 소돔왕과 그의 동맹국들은 그돌라오멜 왕과 그의 동맹국들을 섬긴 지 12 년 만에 그들을 배반했습니다(창 14:1-4).
- ❖ 그 때에 강한 나라들은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. 아브람은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람은 그 땅이 자기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.
- ❖ (하지만)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듣고서,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여쭙봤습니다. 그리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. (부조와 선지자 135).
- ❖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(아브람은) 318 명으로 롯을 구원하고 다메섹으로 돌아 왔습니다.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.

오.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

- ❖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(히 5:10; 7:3). 예수님은 “평강의 왕”으로 (사 9:6) 곧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(고전 15:57; 요일 5:4; 계 15:2).
- ❖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. 아브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.